

# 이재명 “선택 받으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 기자회견서 “준비된 후보” “정치보복 결단코 없을 것”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

6·3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일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뜰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정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설명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 구성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미래산업과 K-콘텐츠 투자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에너지 고속도로 현실화 등의 경제 공약을 설명했다.

또 안보 실용주의, 국민통합 정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정

치 분야 개혁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된 후보와 정당만이 삼각파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낸 이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발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격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냐”며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인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25일 광주지역 한 인쇄소에서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

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변화를 바라신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만이 만들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 민주 ‘사법부 흔들기’ 우려에 “튼다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판선대위원장은 25일 당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튼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일전’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뒤통수 수위 조절이 중요하네,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능할까, 좋을까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 광주 106명·전남 303명 대선 선상투표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제21대 대선 선상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 106명, 전남 303명 등 지역 유권자가 각자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투표에 참여한다. 전국적으로는 454척 선박에서 3,051명이 선

상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고, 이중 3,108명이 투표했다. 김용현 기자

## ‘1차 시한’ 넘긴 김문수·이준석 ‘마이웨이’ 가나

### 단일화 데드라인 29일 사전투표 TV토론·지지율 추이 등 변수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5일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기면서 양측이 ‘마이웨이’를 걷는 것이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워졌다. 이후 단일화가 이뤄져도 투표 당일(6월 3일) 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기되지 않고, 투표소에만 안내문이 게재된다.

최종 데드라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이다. 만약 이때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하겠다는 목표 아래 회유·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전선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를 향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분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준석 후보도 점점 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100% 안 한다”며 ‘사전투표 전 단일화’에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100% 국민경선·공공정부 구성’ 등 제안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데만 일조하고 있다”며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 제약상 경선 등 절차를 거치는 형태의 단일화 협상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후보 간 ‘담판’과 ‘양보’를 통한 단일화가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단일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변동 폭이 커진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상승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져 양측이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경우 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는 오는 27일에 3차 TV 토론이 열리고, 이튿날인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과 신경전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h3>쌍촌동 (4층건물) 매매</h3> <h2>상가 주택</h2> <p>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p> <p>▶ 원가 급매</p> <p>13억 9억8천만</p>	<h3>장성토지 (담양)</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li> <li>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li> </ol>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기능 (룸, 노래홀, 홀덱바)</li> <li>6층 (전용 60평)</li> </ul> <p>(보2천, 월수익 250만)</p> <p>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p>	<h2>법원 경매</h2> <p>★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p> <p>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p>
010-6670-9800		062-382-5500	